

# NEWS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 광주시체육회, 2028 전국체전 유치 '잔걸음'

### 美 구급 한국인 오늘 도착 이민당국 체포·구금 7일만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새벽 구급 시설을 떠나 나와 귀국 여정을 시작했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 숙소(ICE) 구급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2시 18분(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 18분)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대한항공 전세기 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7일 만이다.

구급 시설 철문을 나선 한국인들은 수감 등 구속없이 평상복으로 문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 전원이 귀국하는 것이다. 잔류한 한국인 1명은 영주권자로, 구급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들은 애초 지난 10일 새벽 구급시설에서 나와 같은 날 오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밤 미 정부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귀국 절차를 중단하면서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 연합뉴스

### ▶1면 'AI 혁신도시'서 계속

강 시장은 또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향하는 길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이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는 그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1000개의 기업이 광주에 오는 일이고 1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광주에 생기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광주의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신청서 작성...인공지능·문화예술 등 4대 목표 담아 전갑수 회장 "광주 특색 살려 독창적인 체전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1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문화예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2028년 전국체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치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방침

이다. 이번 신청서에는 AI, 문화예술, 시민참여 확대, 장애인·비장애인 등 4대 목표를 담았다. 먼저 AI 스마트체전을 목표로 무인 셔틀버스 자율주행을 통한 경기장 수송 운영 등 그동안 광주에서 연구 개발한 AI 서비스 실증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

감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 융합체전을 위해 경기장에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 예술경기장을 조성하고, 동구 충장로 축제 등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문화 축제와 연계해 ACC·비엔날레 등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체전을 목표로 인기종목 주간경기를 퇴근시간 이후인 야간경기로 변경해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포함한

응원단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상점·숙박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기에 어울림 체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전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경기장별 휠체어 동선을 사전에 확인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점자 안내판과 음성안내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장애인 전용차량 사전 배치를 통해 접근성도 강화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만의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전국체전을 선보이는 목표로 광주시민들의 열렬한

2028년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유치신청서는 광주시와 협의 후 광주시장의 보증서와 광주시의회 의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이달 26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시체육회는 지난 7월 강기정 광주시장 주재로 열린 '전국체전 광주 유치, 체육인과의 대화'를 통해 2028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소통의 장을 개최한 바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김영록 도지사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관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및 도민들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군 정신과 애국·애족의 가치공유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영호남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맞손'

전남·경북본부, 각 2000만원 교차 기탁

농협 전남본부와 경북본부는 최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개막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최진수 농협 경북본부장, NH농협지부 차상훈 전남지역위원장, 김종필 경북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전남·경북 지역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소속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양측을 대표해 이광일 전남본부장이 김학홍 부지사에게, 최진수 경북본부장이

김영록 지사에게 각각 20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지역 소멸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와 경북도, 양 도의회는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전남본부와 경북본부도 매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영호남의 우애와 상생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 해주신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도, 적조주의보 확대...양식장 보호 총력 대응

특량만 주의보·서부 남해 앞바다 예비특보...방제 강화

전남도가 특량만에 적조주의보가,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 예비특보가 각각 발령됨에 따라 적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가막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이어 전남 오후 2시 기준으로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다. 대조기 진입 시점과 맞물려 적조 피가 주변 양식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적조 조류인 코롤로디니움 성장에 적합한 22~27도의 수온이 유지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방제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고 황토 살포 범위를 넓히는 등 차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토 5350t을 살포했으며, 황토 운반선·포크레인 등 장비 51대와 선박 164척을 투입해 수류 방제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현장 대응반을 상시 배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식 어류 보호를 위한 긴급 방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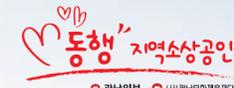
진행 중이다. 현재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는 참돔, 감성돔 등 양식어류 약 6407만 마리가 사육 중이며, 이 가운데 423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도는 적조 발생 해역에 대해 매일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달해 현장 대응과 방제 작업에 반영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주는 적조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제와 예찰을 더욱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양식 어업인들께서는 막이 공급 중단, 야간 산소발생기 가동 등 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근 기자 gnnews1@

### KT 이용 5561명 유심 개인정보 유출

교체 신청·보호 서비스 안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 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로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 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이날 오후 해당 이용자들에게

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 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 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행 지역상상공인  
광남일보 | 시정발전위원회



EDEN **경력 30년 노하우!!**

## 이든 하우스 컨테이너



이든하우스컨테이너 검색

나만의 세컨하우스~ 갖고싶다!!

**조달청 3자간가등록업체/농공단지직접생산업체**

- 농약이동식주택
- 스타하우스
- 초소·휴먼부스
- 이동식화장실
- 컨테이너 제작·판매·렌탈·중고매입
- 조경시설물(파고라,운동기구,벤치)
- 휴먼지털이(원드건,제작,설치,판매)

본 사/1공장 : 목포시 공단중앙로 30 (농공단지 내) 061) 277-0004  
 전시장/2공장 : 목포시 용매동 603번지 061) 261-7400



농약이동식주택



태안해양관광단지-스타하우스



목포해양대학교-휴먼부스



**(유)이든하우스**